

5/10/15

설교 제목: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도행전 1:9-11, 베드로후서 3:1~14

(행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행 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벧후 3: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절관주** 벧후 1:13

(벧후 3: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벧후 3: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벧후 3: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벧후 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벧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절관주** 시 90:4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벤험 3:10)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 24:35, 계 20:11

(벤험 3:11)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벤험 3:12)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절관주** 시 50:3, 시 50:4, 사 34:4, 미 1:4

(벤험 3:13)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절관주** 계 21:27

(벤험 3:14)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절관주** 벤험전 1:7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만든 신화집?

약 6000 여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

아니면 올바르게 살라고 권면해 놓은 교양 도덕 훈계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체험한 간증들을 기록해 놓은 간증서?

성경에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대로 언젠가 마지막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주님께서 구름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가지 말들을 합니다.

1. 무재림 (無再臨) 설

무재림설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또는 비유적인 것으로 봅니다.

2. 기재림 (既再臨) 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설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셨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알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3. 미신 (迷神) 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에서 '재림 주'가 나타나서 재림을 성취한다는 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재림교 이장림, 신천지 이만희 등등이 이 설을 이용해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 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4. 후천년 왕국설

17 세기의 영국의 신학자 다니엘 웨트비가 주장한 학설에 근거한 설로 그들은 세상이 지상 천국으로 변하고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린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현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면 세계가 복음화되어 지상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 그 후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5. 7년 대환란설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 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는 설로 세대주의자들이 이같이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본문인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설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비웃고 세상이 마지막 날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이 세상은 미래에도 현재와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 교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베드로는 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교인들은 그 사실을 흔들림없이 믿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셨으면 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진실인가?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딘가?" 하면서 점차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 진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며 멋대로 살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설상가상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안타까와하며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할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벤후 3: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벤후 3: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멸망시키시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나 다름없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옛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는 불을 사용하실 것인데 아직은 내버려두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벤후 3: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벤후 3: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벤후 3: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벤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벤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만유에 대한 주권과 권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실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일도 없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새롭게 하실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되기가 왜 이렇게 더딘가?” 의문을 품는 신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벧후 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내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못 참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시는 줄 아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천년이나 되는 듯 견디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과 의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왜 이리 늦어지냐고 하루가 천년이나 되는 듯 못 견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라시며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 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루를 천 년같이 여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고 크신 마음과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하시고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깊은 뜻과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의 날, 심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벧후 3:10)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불에 던져 태워 없애실 것은 다 불에 던지시고, 녹여 버리실 것은 다 녹여 없애 버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며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존속시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는 결코 않으실 것입니다.

(벧후 3:12)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3)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은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한 이 세상이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본문 12-14 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의가 있는 새 세상, 의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본문은 또 우리가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12, 14 절은 의로운 새 세상이 이루어질 날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벧후 3:11)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벧후 3:12)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새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주의 날,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고 간구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